

TV프로그램

Table with 5 columns: KBS1, KBS2, MBC, KBC-SBS, E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across different channels.

‘록의 전설’ 송골매 마지막 투어

배철수·구창모 40년 만 결합 부산·대구·광주·인천 순회



“1990년부터 라디오 DJ를 하면서 음악을 직접 하는 것보다 음악을 소개하는 게 내게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송골매가 더 나이 들기 전에 한번 하자고 (구창모와) 10년 전부터 이야기를 주고 받았죠.” (배철수)

1980년대를 풍미한 전설적인 록 밴드 송골매의 배철수와 구창모가 약 40년 만에 전국투어 콘서트로 다시 날아오른다.

송골매의 리더 배철수는 지난 6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전국투어 콘서트 ‘열망’ 제작발표회에서 “젊은 시절로 타임머신을 타고 타임슬립을 하는 느낌으로 할 것”이라며 “편곡은 100% 오리지널 그대로 한다”고 말했다.

보컬 구창모는 “20대 때 가졌던 음악에 대한 열정과 열망을 지금 이 시대로 그대로 가져와서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전국투어는 이로부터 32년, 배철수와 구창모라는 ‘투톱’ 체제가 갖춰진 지 40년 만의 콘서트로 의미가 크다. 청바지와 장발로 상징되던 송골매의 저항 정신

밴드 송골매의 배철수, 구창모가 지난 6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신한pLay 스퀘어에서 열린 송골매의 전국 투어 콘서트 ‘열망(熱望)’ 개최 기념 기자회견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혹은 일탈도 다시 소환될 전망이다.

송골매는 9월 서울 올림픽공원 케이스포돔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광주, 인천을 순회하며 힘찬 날갯짓에 나선다. 이들은 내년에는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에서도 공연을 계획 중이다. 이번 투어는 송골매의 마지막 콘서트라 될 공산이 크다.

배철수는 “세상 모든 일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좀

위험하기는 하다”는 조건을 달고서 “이번 공연까지 마치면 더는 음악은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은퇴 예고’를 했다.

“배철수가 1979년 제1기 마포동 설악산 암자로 다섯 시간 걸려서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음악을 같이 하자’고 첫 마디를 꺼냈죠. 숙명이라는 단어가 있죠? 음악을 하면서 숙명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됐어요.” (구창모) /연합뉴스

‘뽕뽕 지구오락실’ 282만뷰 돌파

‘나영석 예능’ 세대교체

익숙한 형식·새 멤버 구성

나영석 PD가 뽑아낸 밝고 당찬 여성 출연진의 매력에 MZ세대를 사로잡았다. 7일 주요 방송사의 클립 주분형 비디오(VOD)를 온라인에 유통하는 스마트미디어랩(SMR)에 따르면 6일 기준 tvN ‘뽕뽕 지구오락실’ 클립 조회 수는 방송 2회 만에 총 282만 뷰를 돌파했다.

나영석 PD의 새 예능 ‘뽕뽕 지구오락실’은 이영지, 미미, 안유진, 이은지 등 MZ세대를 대표하는 여성 출연진이 태극에서 게임과 미션을 즐기는 모습을 담는다.

‘뽕뽕 지구오락실’은 나 PD표 예능 흐름을 이어가면서 새로운 멤버 구성으로 차별을 꾀했다. 강호동, 이서진, 윤여정 등 그동안 나 PD 예능에 단골로 출연한 연차

높은 연예인 대신 MZ세대 여자 넷이 등장했다.

신선한 출연진의 조합은 예능판의 고인물화·고령화에 지친 시청자들을 성공적으로 겨냥했다는 반응을 얻고 있다.

나PD 예능답게 출연진이 제작진과 편하게 소통하는 장면을 이번에도 재치 있게 담아냈는데 웃음 포인트가 달라졌다.

제작진이 경쾌하게 ‘뽕’과 ‘탈락’ 등을 외치며 즐거워하는 모습 대신 한참 어린 출연진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이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안긴다.

MZ세대 출연진의 매력은 같은 세대 시청자들에게 가장 잘 통했다.

‘뽕뽕 지구오락실’의 클립 영상 연령별 점유율 분포를 보면 20대가 61.9%, 30대가 20.1% 점유율을 차지했다.

‘뽕뽕 지구오락실’의 시청률 1위를 차지한 영상은 멤버들이 처음 만나 각오를 다지



tvN ‘뽕뽕 지구오락실’ /연합뉴스

고 랜덤 플레이 댄스를 하는 영상으로, 75만회 재생됐다. 2·3위는 MZ세대 멤버들의 에너지에 맥을 못 추는 나PD의 반응이 담긴 영상이다.

2위는 프로그램의 세계관을 설명하는 나PD에게 가감 없이 불만족스러움을 표현하는 출연진의 모습을 담은 영상으로 36만회 조회됐다. 3위는 이영지가 나PD에게 ‘몇년 차냐’고 묻는 모습으로 조회 수 29만회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오늘의 운세 section with a grid of zodiac signs and their corresponding horoscopes for the day of July 8th.